

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... 민생회복 위해 국토부-지자체 간 적극 협력

- 1.22(월), 국토교통부,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 합동 기자설명회 개최
-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선택권 확대...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적극 안내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서울특별시(시장 오세훈), 경기도(도지사 김동연), 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월 22일 오후 2시,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.
 -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, 고물가·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.
 -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-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·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,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·도(189개 시·군·구)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.
 - K-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,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(일반인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 53%)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(월 최대 60회)이다.
-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, 월 6만원대 금액*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.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 - * 따름이 포함 시 6.5만원, 따름이 제외 시 6.2만원
 - 서울시민은 K-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한편, 경기도와 인천시는 K-패스를 기반으로 경기·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“The 경기패스”와 “인천 I-패스” 사업을 준비 중이다.

- “The 경기패스”와 “인천 I-패스”는 K-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,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(경기·인천, 39세까지)하거나,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혜택을 상향(인천)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.

※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 중

-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-패스 혜택과 경기·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예상 이용자 예시 >

■ A씨(22세) :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대학교로 통학, 주말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·인천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	⇒ K-패스(청년층)로 매월 대중교통비 30% 환급(최대 60회) ✓
■ B씨(50세) :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며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, 주말에도 서울시 내에서 자주 대중교통 또는 따릉이를 이용	⇒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 ✓
■ C씨(39세) :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서울로 매일 출·퇴근, 주말에도 활동이 많아 매월 6~70회 대중교통 이용	⇒ The 경기패스로 60회 초과분까지 30% 환급 ✓
■ D씨(65세) :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·친지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매월 6~70회 대중교통 이용	⇒ 인천 I-패스로 60회 초과분까지 30% 환급 ✓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,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‘행동하는 정부’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- “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,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, 버스·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힐 예정이다.

□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.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2024년은 1.27 출시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”이라며, “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, 경기도,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히고,
-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“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‘The 경기패스’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, 나아가 국토부, 서울시,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히며,
- 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인천시는 정부의 K-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-패스, 광역 I-패스(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)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”면서,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·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백승록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1-5082)
	서울시 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진구 (02-2133-2210)
		담당자	팀 장	김종민 (02-2133-2224)
	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엄기만 (031-8030-3710)
		담당자	팀 장	한승민 (031-8030-4301)
	인천시 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동우 (032-440-5030)
		담당자	팀 장	김민교 (032-440-3881)



참고

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비교

구 분	K-패스(전국)	The 경기패스	인천 I-패스	기후동행카드
지원기준	월 15회↑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*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필요			카드 구매자 (월 6.2~6.5만원) * 따름이 포함 시 6.5만원 ** 따름이 제외 시 6.2만원
지원방식	이용자에 사후 환급			이용자가 사전 결제
지원대상	일반	20% 환급		카드 구매자
	청년	30% 환급		
		만19~34세	만19~39세	
	저소득	53% 환급		
기타	-	+어린이·청소년 年 최대 24만원 (별도 시스템 기반)	+ 65세 이상 30% 환급 (단계적 추가 상향)* + 어린이·청소년 年 최대 12만원* (별도 시스템 기반)	
지원상한	월 최대 60회	무제한		무제한
이용수단	전철·시내버스 (마을버스·농어촌버스 포함) * 신분당선, 광역버스, GTX 포함			서울시내 전철, 서울시 면허 시내·마을·심야버스, 따름이, 리버버스 * 신분당선·광역버스 등 제외
이용지역	전국 (이용자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 참여 시)			서울시 *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추가 확대 예정
시행시기	'24.5월	'24.5월 (협의 중)		'24.1.27~6.30(시범사업), '24.7~(본 사업)
주요 이용자 (예상)	- 전국(수도권 포함) 대중교통 정기적 이용자 - 광역통행 이용자	- 경기도민 또는 인천시민 中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		- 서울시내 대중교통 정기적 이용자 - 따름이 이용자

* 인천 I-패스의 지원확대 방안은 인천시 행재정적 여건, 별도 시스템 구축시기 등에 맞춰 시행시기 조정 예정